

# 꼭스놀교회 기도편지

제자교회 목사님,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제자교회 성도님들,  
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평안하신지요?

벌써 한 해가 다가고 2024년도도 몇 일 남지 않았습니다. 2024년도 기도의 동역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사랑과 관심 은혜를 부어주셔서 꼭스놀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. 늘 감사드라며, 이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함께 걸어주심 늘 감사드립니다.



꼭스놀 교회는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현지인들에 의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. 현지인 사역자인 분룡 선생과 아내인 치은 선생이 함께 성장하며 사역지를 이끌고 있습니다. 내년에는 분룡 선생이 신학교에도 입학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. 좀 더 말씀에 성장이 있고 신앙에 진보가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.

지난 달까지 소티와 스러이피가 동역사역자로 함께하였습니다. 소티는 저희 꼭스놀 교회 출신으로 처음 꼭스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한 친구입니다. 함께 시작한 다른 아이들이 늘 같은 이유로 떠나 갔지만 지금까지 남아 저희와 함께 사역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. 처음 내성적이고 말도 많지 않았던, 얼굴에 늘 불평이 가득하던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밝게 바뀌고 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.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

스러이피는 지난 달까지 사역을 하고 그만 두었습니다. 저희가 아는 아빠만 5명이고, 엄마도 최근 사고로 돌아가셨고, 아빠가 다른 동생들과 남겨졌습니다. 저희가 울타리가 되어주고 함께 걸었지만, 그 마음이 외로움으로 힘이들었나봅니다. 믿지않는 남자친구를 만나더니 그 남자친구와 함께살고 거짓말을 둘러대더니 결국은 그만 두기로 했습니다. 스러이 피도 소티처럼 꼭스놀 교회를 시작 할 때부터 함께 한 친구인데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같은 이유로 세상을 더 사랑 해 떠나갔습니다. 결국은 엄마가 살 던 삶을 똑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사역자들과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운 마음 뿐입니다. 스러이 피가 더 잘못 된 길로 깊이 빠지지 않고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주세요.



현재는 분룡선생과 소티 둘이서 교회사역을 담당합니다. 다행이도 처음 꼭스놀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던 여럿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 아이들 중 나쁜 이 내년부터는 교회사역을 도울 것입니다. 그 다음 년도에는 사라이, 로앗따나, 로앗, 껌선, 마넛 등 잘 따라오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세워질 것 입니다. 학교에 안가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지만, 이제는 그래도 유급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유급을 합니다. 정부에서는 유급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,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일수가 모자라고 기말시험을 망칠경우 유급을 시키고 있습니다. 한 두 번 유급을 하면 12-15살의 나이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고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. 반복되는 일들 이지만, 그래도 건강하게 잘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어 또



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. 이 아이들을 위해서 오후 반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성경과 우쿠렐레, 기타등을 가르치며, 또 함께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아이들에게 필요한 용품과 식료품을 매 주 나눠주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. 이 사역이 계속 되어지도록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동역자님들께 늘 빛진마음이며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.

꼭스놀 교회 사역을 시작한지 7-8년이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도 10세 이상 아이들은 늘 같은 나이 때의 아이들입니다. 늘 10-16살의 아이들입니다. 7-8년이 지났으면 20대의 아이들도 있어야 하지만, 다들 같은 이유로 떠나가고 늘 10-16살의 아이들만 가득입니

다. 이것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사역이 버리보사역입니다. 버거를 팔고 커피를 팔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알자리를 제공하고자 시작한 사역입니다. 벌써 2년이 다 되어갑니다. 아직 큰 이윤을 내지는 못하지만 매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. 이 사역이 비즈니스로 자리를 잘 잡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 이윤을 내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 현재는 사역자 분롱의 아내 치은과 천, 그리고 사오피어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. 3명의 아이들이 이 버리보 사역을 통하여 일자리를 얻고 제정적으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.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부탁드립니다.

목사님,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 한 해를 안식년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 이 후 가족은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저만 캄보디아에 있어, 가족과 오랜시간을 떠나 보낸 것이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. 내 년 10월까지 한국에 있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나갑니다. 한국에 나가있는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다시금 건강한 가족으로 세워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 저는 본 교회 일산신성교회에서 머물 것 입니다. 또한 이 일년이 현지 사역자에게도 기회가 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. 늘 함께 고민 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셔서 늘 감사함 뿐 입니다. 캄보디아 땅이 무너진 가정으로 다시 설 수 있을까 고민 되지만 믿음 위에 선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날, 이 땅도 함께 회복 될 것을 믿습니다. 아이들이 믿음 위에 건강하게 성장하고,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날까지 함께 걷고 기도 부탁드립니다.



캄보디아 이성현 선교사 드림